

제 2회 충청중국포럼

## “뉴 노멀(New Normal)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일시 : 2015. 6. 25(목). 16:00-18:00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목 차
-----



1. 프로그램 .....	1
2. 강사소개 .....	2
3. 강연자료 .....	3
4.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소개 .....	20

## I. 행사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16:00-16:10	-인사말 : 박인성(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장)
16:10-17:10	- 기조강연 :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17:10-17:40	- 질의응답, 자유토론 사회 : 박인성 중국연구팀장
17:40-18:00	- 보령시 머드 축제 관련 동영상 상영
18:00-19:30	- 저녁식사

## II. 강사 소개

### 김한수(金漢洙)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 생년월일 : 1962년 1월 20일

□ 학 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84년)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경제학 석사 졸업(1998년)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외화자금국 팀장, 대구본부 팀장, 국제국 국제총괄팀장, 외환업무부장
- 북경사무소 사무소장(2013년 2월 1일)

## **뉴 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16:10 – 17:10**



본 자료는 발표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 >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진로

2015. 6. 25(목)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김 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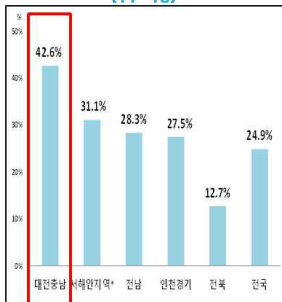
### 들어가기전에.....중국의 뉴노멀화, 왜 중요한가 (1) 중국경제의 뉴노멀 시대 진입과 충남경제의 위기

#### ✓ 대전충남 GRDP 성장률

7.7 % (00~10평균) → 3.7 % (11~13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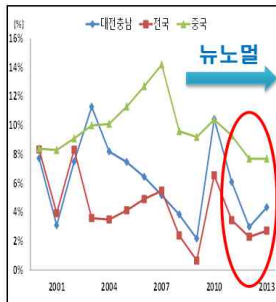
- GRDP대비 수출: 66.4% (전국 50.0%), 대중국 수출: 42.6% (전국 24.9%)  
충남 74.4%                      충남 44.1%
- 대중국 수출 증가율: 2010년 32.5% → 2014년 -4.6%

지역별 대중국 수출의존도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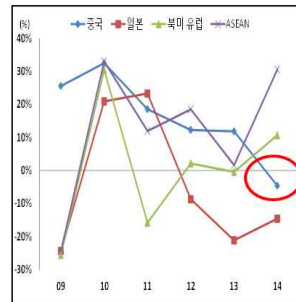
서해안지역: 인천경기, 대전충남, 전남, 전북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GRDP 성장률



자료: 통계청, World Bank

대전충남 대중국 수출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1

## 들어가기전에.....중국의 뉴노멀화, 왜 중요한가 [2]

뉴노멀 중국과 한국 거대기업 주가 -> 생태계의 변화



철강, 조선 등 과잉설비 제조업 주가는 하락

전자, 자동차 등 중국현지 기 진출  
거대기업 주가는 보합세



화장품, 여행 등 중국 신소비 관련 주가는 폭등세



한국은행

2

## 들어가기전에.....중국의 뉴노멀화, 왜 중요한가 [3]

뉴노멀 중국과 중국 거대기업 (알리바바)의 부상



1999年10月 马云与孙正义初次见面。  
2000年1月孙正义向阿里巴巴注资2000万美元。

2010年6月1日 淘宝雅虎日本网购平台正式上线



2014年9月19日 阿里巴巴在美国上市, 马云在美国  
纽约证券交易所门前向现场投资人和工作人员致意。

한국은행

3

## 차 례

I. 충남경제의 현재 : 대중국 의존현황

II. 중국경제의 뉴노멀화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III. 충남경제의 진로

## I. 충남경제의 현재 : 대중국 의존현황

1.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2. 중간재 등에 대한 수출편중

3. 투자협력 부진

# 1.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 ✓ 충남 대중국 수출 290.2억 달러(2014년)

- 전국 대비 20.0%, 지역 전체 수출의 44.6% (전국평균 25.4%) 차지

## ✓ 대중국 수출특화계수(LQ지수) 전국 최고 수준

$$LQ_i = \frac{j\text{지역}i\text{국 수출액} / j\text{지역총수출액}}{\text{전국}i\text{국 수출액} / \text{전국총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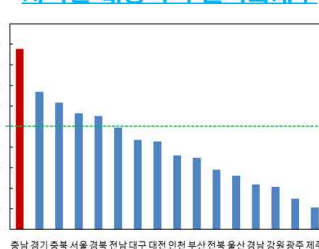
## ✓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 중국경제와의 높은 상관관계

대중국 수출 의존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대중국 수출특화계수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GDP와 상관관계

	충남	전국
수출	0.61	0.30
GRDP (GDP)	0.29	0.24

주 : 1990 ~ 2013년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6

# 2. 중간재 등에 대한 수출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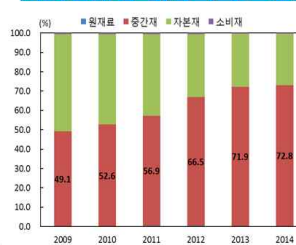
## ✓ 중간재 수출편중

- 충남의 대중국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 : 72.8% (2014년)
  - 금융위기 이후 충남-중국간 수직적 분업체제 확대 ⇨ 중간재 비중 지속적 상승
-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의 충남 비중 전국 2위(19.5%)

## ✓ 특정품목 수출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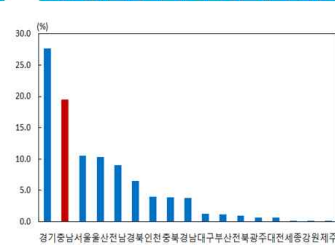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 상위 5개 수출품목 : 73.7% (2014년)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비중



주 : BEC 코드분류에 따라 분류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중간재 수출액의 지역별 비중



주 : 2014년기준, BEC코드에 따라 분류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충남 대중국 5대 수출품목

	00	05	10	13	14
반도체	2.3	15.2	19.8	23.9	23.7
평판 디스플레이	0.0	2.4	43.9	20.4	18.6
전자 응용기기	0.0	1.1	2.9	16.9	14.2
석유화학 제품	16.2	9.4	6.2	10.3	9.9
컴퓨터	1.2	19.3	2.0	4.7	7.2
소계	19.8	47.3	74.8	76.3	73.7

주 : 대중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7

### 3. 투자협력 부진

- ✓ 충남의 대중국 투자 : 2007년 이후 하락세
- ✓ 중국의 대중남 투자 역시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부진
  - 전국대비 0.16%로 경제규모(2013년 GRDP 비중 6.8%) 하회
- ✓ 교역 대비 투자협력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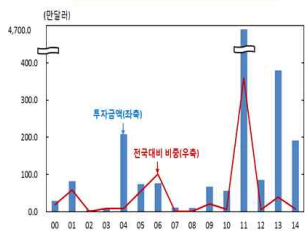
- 교역대비 투자비율 2002년 이후 하락 : 0.69%(2002년) ⇨ 0.24%(2014년)

충남의 대중국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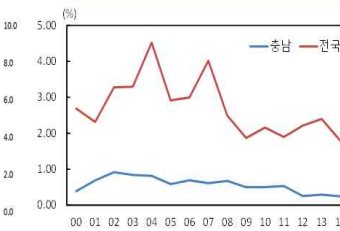
주: 신고금액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중국의 대중남 투자



주: 신고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중국 교역대비 투자비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8

## II. 중국경제의 뉴노멀화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2.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뉴노멀 중국경제의 7가지 특징

- ✓ 세계경제 위상
  - 1) 세계의 공장
  - 2) 위안화 : 일국통화

⇒

세계의 시장

⇒

국제통화
- ✓ 경제성장속도
  - 3) 고속성장(두자리 수)

⇒

중고속 성장 (GDP성장률 6-7%)
- ✓ 경제구조
  - 4) 성장페러다임 : 수출 투자 주도
  - 5) 산업구조 : 조립가공 제조업
  - 6) 대외거래 : 가공무역
  - 7) 금융시장 : 금융억압

⇒

내수 소비 중심

⇒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업 주도

⇒

재화 및 서비스 무역, 자본수출국

⇒

금리 및 자본 자유화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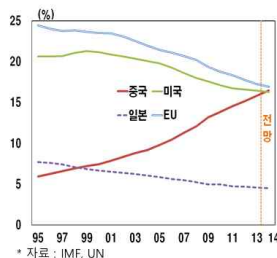
## 슈퍼파워 국가 및 '세계의 시장' 으로 발전 (1)

- ✓ 2010년 G2국가가 된 이후 superpower 국가로 성장 중

※ 달러화 명목환율 기준으로는 2025-30년에 미국을 제치고 G1 국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 (Superpower)으로 부상 (baseline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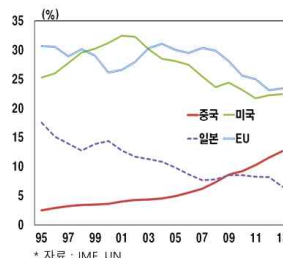
⇒ 1840년 아편 전쟁 이전으로의 re-normalization (?)

중국의 세계 GDP 비중  
(PPP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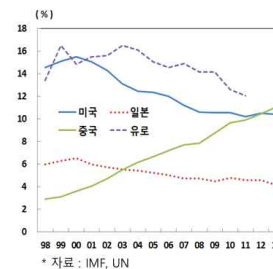
\* 자료 : IMF, UN

중국의 세계 GDP 비중  
(명목달러환율 기준)



\* 자료 : IMF, UN

중국의 세계 무역 비중



\* 자료 : IMF, UN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슈퍼파워 국가 및 '세계의 시장' 으로 발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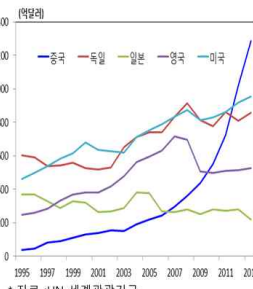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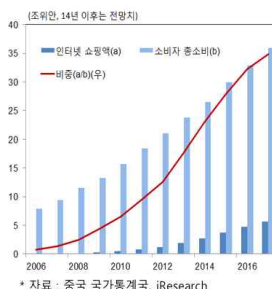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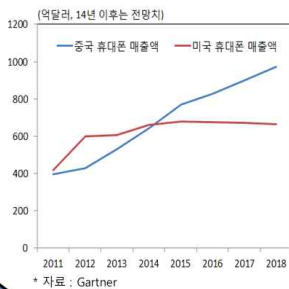
✓ 자동차, IT 등 주요 품목에 있어 세계 최대소비대국 부상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2009]
- 세계 최대 명품, PC, 휴대폰(물량기준) 소비 및 해외관광지출 시장[2012]
- 세계 최대 인터넷쇼핑(2013), 휴대폰(매출액기준) 시장[2014] 등

중국 및 미국 휴대폰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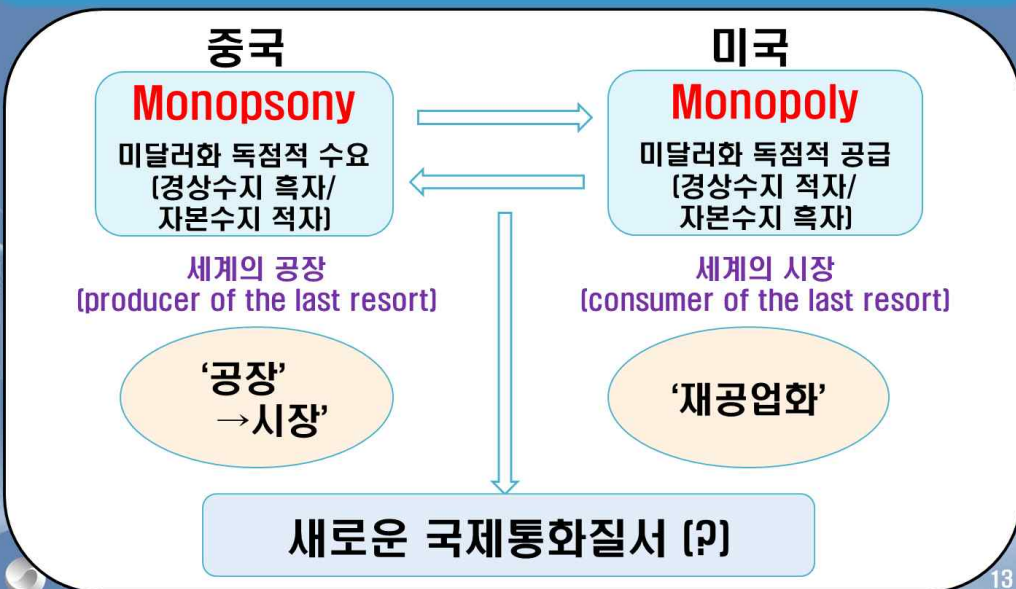
중국 인터넷 쇼핑

주요국 해외관광지출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위안화 : 일국통화 -> 국제통화 (1)- Chimerica의 종언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중국 위안화 : 일국통화 -> 국제통화 (2)

[가설 1] 2020년까지는 지역통화에 그칠 전망 (Eichengreen, 2009)

[가설 2] 2030년 이후 국제화 가능 (Chen Yulu, 2012.9)

	1단계: 2010-2020년	2단계: 2020-2030년	3단계: 2030-2040년
사용범위	주변화	아시아화	국제화
통화기능	무역결제화	금융투자화	외환보유화

[가설 3]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에 중국 위안화가 미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세계 제3대 국제통화로 부상 전망” (Chen Yulu, 2014. 7)

## <참고 1> 초강대국과 기축통화의 변천

### ✓ 기축통화의 역사는 초강대국(superpower) 통화의 역사

\* Drachma(그리스, BC5세기) ⇒ Aureus(로마) ⇒ Solidus(비잔틴) ⇒ Fiorino(이탈리아) ⇒ Guilder (네덜란드, 17세기) ⇒ Sterling(영국, 18-19세기) ⇒ Dollar(미국, 1944년 이후)

### ✓ 근현대 이후 기축통화가 교체된 사례는 단 한번(영 스텔링화 → 미 달러화)

\* 기축통화의 요건(IMF): 1) 경제규모 및 리더십 2) 통화가치 안정 3) 금융시장의 규모 및 유동성  
+ 4) 세계 최종소비국 및 경상수지 적자(E. Erian)

\* 미국 세계 최대 경제대국(1916), 최대 수출대국(1919)

\* 1920-30년대 주도권 경쟁(프랑스의 스텔링 함정) 등을 거쳐 2차 대전 중 브레튼 우즈 체제(1944년) 성립 이후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지위 확립

### ✓ 금태환정지 이후 엔화와 유로화의 도전이 계속되었으나 모멘텀 상실

\* 일본: 자본시장개방(1984), 플라자합의(1985), 엔화강세와 잃어버린 20년→ 아베노믹스

\* 유로: 90년대 초반 마르크화 무역결제 비중 50%, 유로화 출범(1999)이 사실상 유로화의 정점, 유로화 강세와 유로존(주변국) 채무위기 → ECB 양적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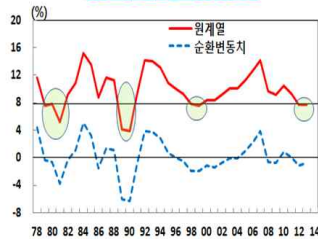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GDP 성장을 둔화

- 1978 개혁개방 이후 4번째 8% 이하 성장 : 이번에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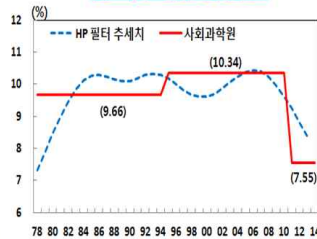
- ✓ 과거 세 차례의 성장둔화 : 순환적 요인에 따른 경기침체  
\* 79~81년, 89~90년, 98~99년
- ✓ 금번 성장둔화 : '새로운 정상상태(steady state)' 로의 이행의 '결과'  
新常态 : 중고속성장(6%~8%) VS 중속성장 (4%~5%)

중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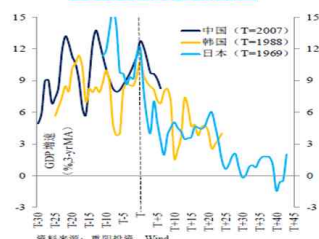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자체 추정

중국 잠재 성장률



자료 : 중국 사회과학원

한중일 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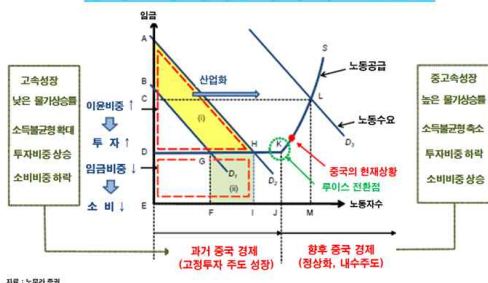
자료 : WIND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참고> 중국 GDP 성장을 둔화, 세계의 '공장' 과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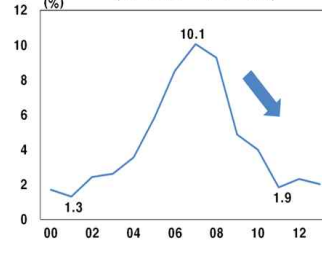
- ✓ 대내 요인 : 루이스전환점 통과, 저임금 노동력시대 종언  
[범용제품 조립가공 '세계의 공장' 중국 지위 약화]
- ✓ 대외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 디레버리징  
[ '세계의 시장' 미국 지위 약화] -> 중국의 수출 위축

중국 노동력시장과 루이스 전환점



자료 : 노무라 증권

중국 경상수지 흑자  
(명목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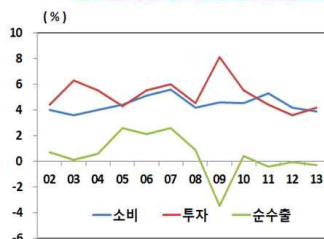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경제구조의 변화 (1)

-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 투자·수출 →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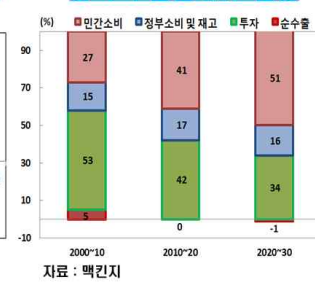
- ✓ 성장패러다임 전환 : 소비 위주의 성장전략(consumer-led rebalancing)
  - 2020~30년중 **민간 소비율 10%p 상승** 예상 (2010~20년 대비)
- ✓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축소 정책 ⇨ **중간재 수입 비중 축소** 예상

중국 부문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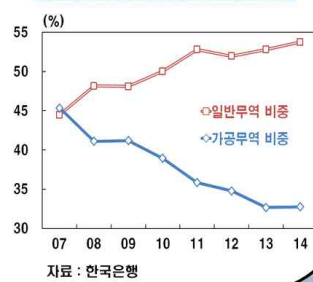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부문별 GDP 전망



자료 : 맥킨지

중국 가공·일반 무역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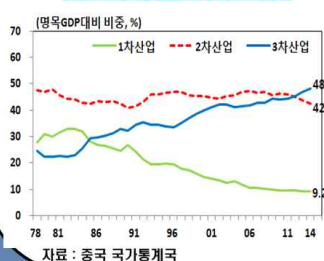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경제구조의 변화 (2)

- 산업구조 변화 : 범용제품 조립가공 제조업 →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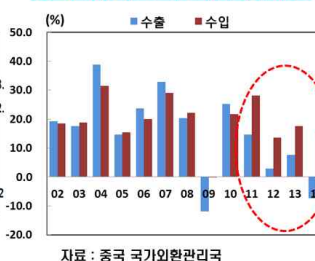
- ✓ 2013년 서비스산업 비중 제조업 추월
  - 무역구조의 서비스화 ⇨ 서비스 무역 비중 상승
- ✓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 [『중국제조2025』, 2015.4월]
  - 세계수출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 격화 예상

중국 산업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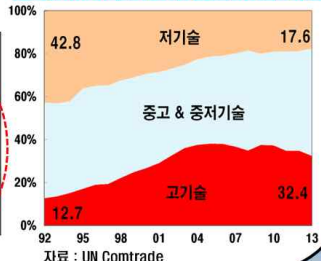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서비스 수출입 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수출 비중



자료 : UN Comtrade

한국은행

19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참조〉 중국제조 2025 계획 : 저가 대량생산 →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구분	주요 내용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향후 30년내 세계 공업강국을 실현(중국제조 2025)</li> <li>· 첫 단계로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에 진입하고 2035년까지 독일·일본을 추월</li> </ul>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까지 혁신 강화·스마트化·녹색 발전 등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li> <li>□ 3대 과제: 제조→창조, 속도→품질, 제품→브랜드</li> <li>□ 첨단장비·운수(항공·선박·자동차)·신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우선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중 첨단장비, 정보네트워크, 집적회로,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의약, 항공엔진, 가스터빈 등을 주도 산업으로 육성</li> </ul> </li> <li>□ 기존 제조업에 IT를 융합하여 디지털·네트워크·지능화</li> <li>□ 아울러 철강, 평판유리 등 과잉설비문제 완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M&amp;A 등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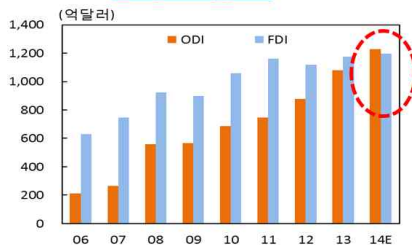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경제구조의 변화 (3)

- 자본수출 확대 : 거대자본수출국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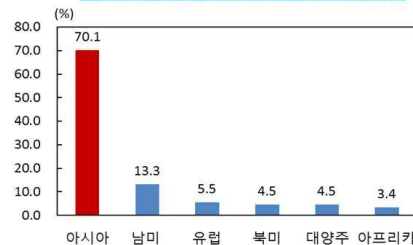
- ✓ 2014년 처음으로 순자본수출국 전환
  - 글로벌자본을 이용한 자국성장 → 중국자본을 통한 세계 경제 주도
  - ODI(해외직접투자) > FDI(외국인직접투자), ODI 규모 1400억 달러(세계3위)
- ✓ 아시아 중심의 투자
  - 신실크로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국 ODI 및 FDI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대륙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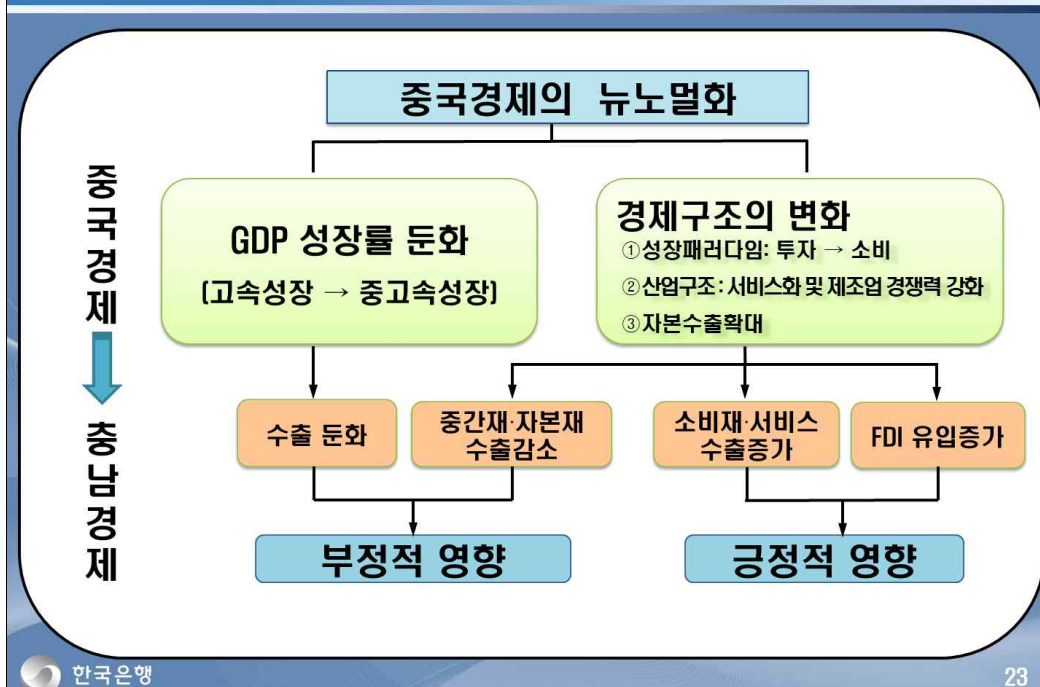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 1.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 〈참고 2〉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과 미국의 마셜 플랜

	신 실크로드 전략	마셜 플랜
◆ 목적	유라시아 전역 인프라 확충 등 산업금융협력 [→ 위안화 시대 도래 ?]	전후 유럽경제 복구를 위한 금융·기술 지원 [→ 브레튼우즈 체제 완성]
◆ 규모	AIIB(\$500억, 이후 \$1,000억) 실크로드 펀드(\$400억)	당시 기준 \$130억 (2006년 환산가치 \$1,300억)
◆ 관련기구	AIIB(52개국), SCO(6개국)	OECD(18개국)
◆ 투자대상국	신흥시장국 (높은 잠재성장을 및 신용리스크)	선진국 (낮은 잠재성장을 및 신용리스크)

# 2.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2.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GDP 성장을 둔화

✓ 중국 GDP 성장을 1%p 하락 → 충남 세계 총수출 **0.8%p**, 부가가치 **0.4%p** 감소

- 산업별 부가가치 영향 : 반도체(-0.7%p), 평판디스플레이(-0.5%p)

중국 성장 둔화가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질기준, %p]

			중국 GDP 1%p 하락	
			세계 총수출	산업별 부가가치
반도체	(38.3)	<27.7>	-1.11	-0.72
평판디스플레이	(52.5)	<15.8>	-1.02	-0.50
석유제품	(13.7)	< 8.6>	-0.44	-0.10
전자응용기기	(97.2)	< 6.5>	-0.66	-2.46
석유화학중간원료	(95.4)	< 4.6>	-0.19	-0.19
컴퓨터	(62.6)	< 5.1>	-0.62	-0.51
무선통신기기	(38.6)	< 5.0>	-0.67	-1.11
자동차부품	(43.5)	< 3.9>	-0.20	-0.05
합성수지	(44.2)	< 3.0>	-0.08	-0.23
자동차	( 0.7)	< 2.5>	-0.22	-0.03
전체	(44.6)	<100.0>	-0.81	-0.36

주: 1) ARDL 모델을 통해 중국 GDP 충격의 국내수출 영향을 추정한 뒤,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영향을 추정  
2) ( ) 내는 품목별 전체 수출대비 대중국 수출비중, < >는 전체 수출액내 비중(2014년)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4

## 2.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성장패러다임 변화

✓ 중국경제 성장패러다임 변화(매년 소비를 1%p ↑, 투자를 매년 0.8%p ↓, 수출증가율 1%p ↓ 가정)

⇒ 대중국 수출 **2.9%p**, 세계 총수출 **1.3%p** 하락(실질, 향후 5년 기준)

- 중국 수입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 가공단계별로 상이

- 중간재(2.2%p ↓), 자본재(0.8%p ↓), 소비자재(0.1%p ↑)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증가율 변화<sup>1)</sup> [%p]

	충남 (A)	전국 (B)	격차 (A-B)
소비재	0.05	0.22	-0.18
원자재	-0.01	-0.01	+0.00
자본재	-0.77	-0.53	-0.24
중간재	-2.17	-2.05	-0.12
수출	-2.90	-2.37	-0.53

주: 1) (T+5)년의 T년 대비 증감률 변동(누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충남경제에 미치는 효과<sup>1)</sup> [%p]

	대중국 수출	총수출 <sup>2)</sup>	GRDP <sup>2)</sup>
소비재	0.05	0.02	+0.01
원자재	-0.01	-0.00	-0.00
자본재	-0.77	-0.34	-0.14
중간재	-2.17	-0.94	-0.40
수출	-2.90	-1.28	-0.54

주: 1) (T+5)년의 T년 대비 증감률 변동(누계)

2) 수출 및 GRDP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비중으로 역산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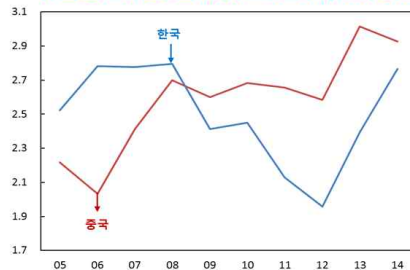
25

## 2.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산업구조변화

- ✓ **중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 격화**
  - 중국의 IT 산업(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RCA지수 한국 상회
- ✓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 **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
  -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부문 TSI 플러스 전환, 충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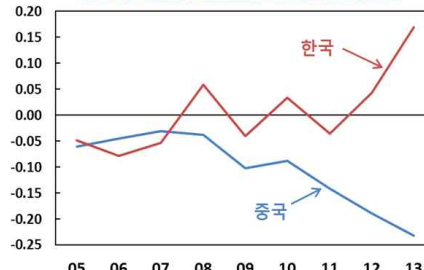
IT산업<sup>1)</sup>부문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주 :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자료 : 한국은행

서비스 부문 무역특화지수(TSI)



주 : 중국TSI는 대세계 기준

자료 : 중국 해관총서

26

## 2.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본수출 확대

- ✓ **중국 투자 유입에 따른 충남지역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미미**
  - 생산유발액 81.7억원, 고용유발인원 38명(2013년 기준)
- ✓ **지자체의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
  - 한중 FTA체결 및 입지적 장점을 적극 이용

중국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sup>1)2)</sup>

	[억원, %, 명]	
	충남	전국
직접투자액	39.9 (0.005)	5,078.4 (0.036)
생산유발액	81.7 (0.009)	10,385.4 (0.073)
고용유발인원	38 <0.003>	6,616 <0.026>

주 : 1) ( ) 내는 GDP(GDP)대비 비중

2) < > 내는 총취업자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충남의 중국자본유치 10대 계획

	프로젝트
제조업	천안5산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 송산2산업단지, 계룡 국방과학산업단지, 서천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문화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 부여 서해안 한중경제 대협력단지,
관광	부여 리버사이드 호텔, 안면도 관광개발, 서천 서해안권 관광지 조성

자료 : 충남도청

27

### III. 충남경제의 진로

1. 균형있는 경제협력 체제 구축

2.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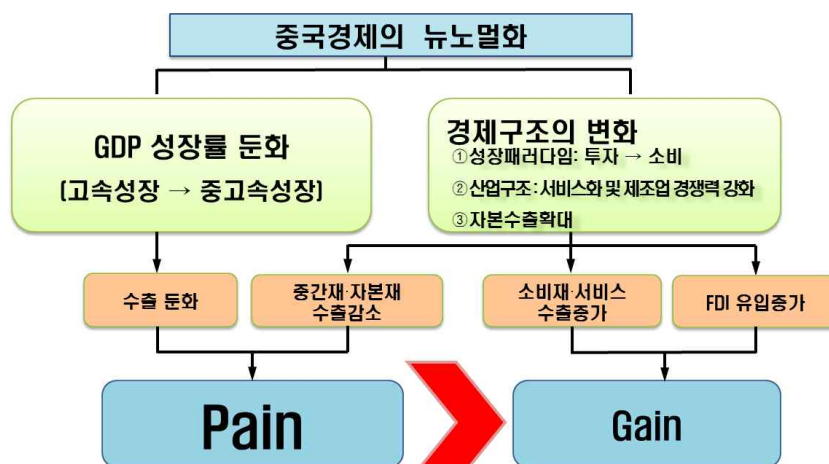
3.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 다변화

### III. 충남경제의 진로

✓ 중국 뉴노멀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Pain > Gain

Pain : 중국 성장을 둔화 및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

Gain :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및 자본수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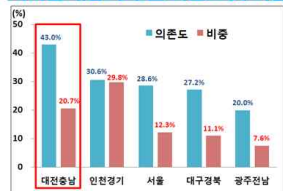
### III. 충남경제의 진로

#### ✓ 충남경제의 진로 : 대중경협의 뉴노멀화

- ① 신실크로드 동북아 허브 구축
  - 투자협력 로드맵 구축과 중국 산업·지역별 발전전략에 대응한 투자 전개
- ② 대중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 → 중국 내수 소비재 타게팅
  - 관광·교육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백제문화, 금산인삼 등]
- ③ 종전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 다변화
  -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특정국가에 대한 리스크 분산

#### ✓ 아울러 충남과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연구 기관간 정례적 교류 추진을 통한 점검 필요

지역별 대중국 수출 의존도 및 비중



중국의 대한국 FDI 지역별 비중



중국인 관광객의 지역별 비중



30

### 마치면서.....

- ✓ “중국은 여태껏 세상에 알려진 모든 왕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구가 많으며, 가장 활기가 넘친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군주 아래 통일된 유럽과 같다”  
- F. Quesnay, 중국의 계몽군주정(Le despotisme de la Chine), 1767
- ✓ “한 문명이 약해지고 다른 하나가 강력해진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문명이 충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약해진 문명이 곧장 붕괴로 넘어갈 것이냐다.”  
- N. Ferguson, 문명(Civilization), 2011
- ✓ “The rise of China has been uninterrupted...the long-term trend will be upward, and especially will be so if the reforms ...are carried through.” - H. Kissinger, Cai Xin, 2015.3.23
- ✓ “This past month may be remembered as the moment the United States lost its role as the underwriter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 L. Summers, Financial Times, 2015.4.5

31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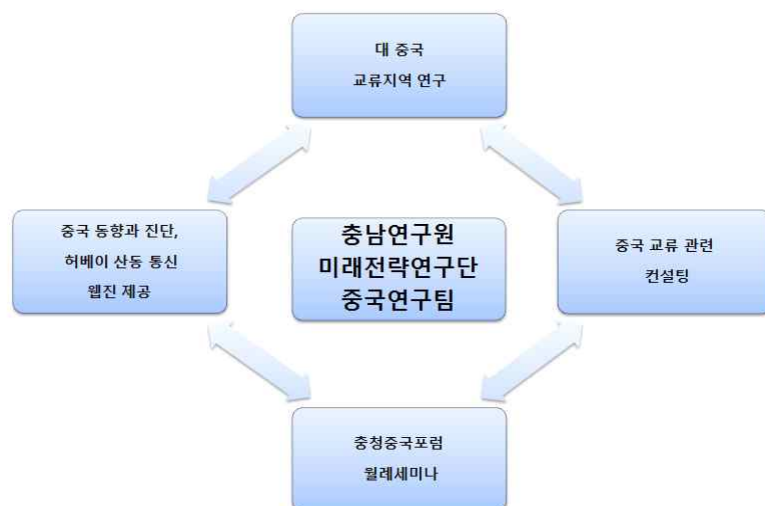


## ‘충청중국포럼’ 사무국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중국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한편으론 충청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레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허베이-산둥통신’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구성원 소개>

박인성. 팀장, 연구위원.

중국인민대학 박사(경제학), 중국 저장(浙江)대학 도시관리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동북아연구팀 중국지역연구 담당 역임.

041-840-1169, ispark@cni.re.kr

박경철. 팀원(겸임), 책임연구원.

베이징(北京)대학 박사(사회학),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041-840-1206, kcpark@cni.re.kr

홍원표. 팀원(겸임), 책임연구원.

베이징(北京)대학 박사(지리학),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연구원 중국연구 담당.

041-840-1188, wonpio@cni.re.kr

유광철. 팀원, 연구원.

서울시립대학 석사(도시행정학), 중국인민대학 지역경제연구소 교환연구원 역임.

041-840-1175, yookwang1234@cni.re.kr

# MEMO

# MEMO

# MEMO

# MEMO